

아동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 감성지능 및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이 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

문혜미¹⁾ · 유명숙²⁾

서론

연구의 필요성

아동간호는 출생 시부터 청소년기까지의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장발달을 돕고 능력과 건강을 보호·증진하며, 질병과 상해를 예방하고 진단 및 처치를 통해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간호하는 동안 아동과 가족을 옹호하는 것이다[1]. 입원한 아동은 부모를 비롯하여 아동병원 혹은 아동을 간호하는 아동간호사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상호작용하는데[2],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한 상태의 아동은 스스로를 돌볼 수 없고 치료적 중재 역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없어 부모가 치료과정에 대해 의사 결정을 한다[3]. 특히 환아 병동에 부모가 상주하는 것이 일반화된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러한 부모 참여는 흔히 수용되는 개념이며[2], 부모 참여(parent participation), 파트너십 간호(partnership in care), 가족중심간호(family-centered care) 등으로 기술되어 왔다[4]. 이는 아동간호실무에서 간호의 대상을 아동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므로[5] 아동간호에서의 차별화된 접근을 위하여 아동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특정한 결과를 산출하는 데에 요구되는 일련의 조치를 실행해 낼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6], 자기효능감이 높은 간호사는 파트너십 간호를 긍정적으로 지각한다고 하였고[5], 간호

업무 수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7]. 또한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임상간호수행능력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자기효능감을 역량 강화의 중요한 요소로 제시하였다[8].

감성지능이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알고 있는 감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9].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는 환자 및 보호자와 직접적으로 관계하며 간호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환자의 신체적 안정뿐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과 만족을 채워주어야 하는 위치에 있다[10]. 따라서 간호실무에서 자신의 감성과 타인의 감성을 알고 이를 조절, 활용하는 능력인 감성지능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11]. 또한 감성지능은 지지적인 상호관계를 기본으로 형성되는 파트너십 간호에 간호사가 지녀야 할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된다[3].

아동간호에 있어 파트너십 간호는 아동간호사와 환아부모의 협력적 관계를 의미한다[3]. 아동간호실무에서 부모는 단순히 수동적인 수혜자나 대리인이 아닌 환아의 선호와 기대를 표현하는 파트너로서의 의미를 지닌다[12]. 아동간호사는 질적인 간호를 제공하기에 앞서 아동과의 관계 뿐 아니라 환아부모와의 협력적이고 신뢰적인 관계를 먼저 형성해야 한다[13]. 이러한 아동간호사와 환아부모의 협력적 관계 형성은 아동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며[5], 아동간호실무영역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 사안이다[3]. 또한 입원한 아동의 간호 사정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와 환아 어머니 사이의 긴밀한 파트너십이 확인되었으며, 아동의 임상 상태변화

주요어 : 아동간호, 자기효능감, 감성지능,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 간호역량

* 이 논문은 제1저자 문혜미의 석사 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1) 대구파티마병원, 간호사(<https://orcid.org/0000-0002-5018-3568>)

2) 대구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간호과학연구소, 교수(교신저자 E-mail: sryoo7@cu.ac.kr) (<https://orcid.org/0000-0002-5870-1701>)

투고일: 2020년 5월 19일 수정일: 2020년 6월 3일 게재확정일: 2020년 6월 6일

를 식별할 수 있는 어머니의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은 평가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하였다[14]. 이러한 파트너십의 형성은 아동간호사에게 아동의 임상 상태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시각을 제공하며, 파트너십이 형성되지 않으면 중요한 평가 정보가 손실될 수 있으므로[14] 간호역량에서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동간호실무에서 간호역량은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포함된 기술적 역량과 공감, 존중, 신뢰가 포함된 대인관계 역량으로 구분되며[15], 이러한 간호역량은 구체적인 실무상황에서 측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16]. 국외의 경우,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파트너십 맺기, 근거중심적·체계적 실무수행, 실제적인 실무 기술, 그룹 활동 수행, 동료 및 타 인력과의 협력, 일차보건의료 접근, 아동의 건강에 대한 지식 활용, 가족 역량과 회복탄력성 촉진, 가족의 적극적 참여와 지지 등이 아동간호역량으로 제시되었다[17]. 또한 소아 종양학 간호관련 연구에서는 치료의 부작용 식별, 부작용에 기초하는 생리적 과정의 이해, 평가에서 비롯되는 의사결정과정의 기술 및 주어진 보살핌의 근거를 가족에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역량수행기준으로 분류하였다[18]. 국내에서는 미숙아 발달 지지를 위한 간호역량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에서 파트너십, 비판적 사고, 상호작용, 부모 지지, 환경 지지, 전문성 개발을 하부영역으로 나타내었다[19]. 그 밖에 소아 정신건강간호의 역량증진[20], 소아 간호실무의 질 변화[21]등의 비교적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아동간호역량의 영향요인에 대해 다룬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간호사의 자기효능감, 감성지능,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 및 간호역량의 정도를 파악하고 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아동간호사의 간호역량 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아동간호사의 자기효능감과 감성지능 및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이 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아동간호사의 자기효능감, 감성지능,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 및 간호역량의 정도를 파악한다.
- 아동간호사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간호역량의 정도를 파악한다.
- 아동간호사의 자기효능감, 감성지능,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 및 간호역량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아동간호사의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아동간호사의 자기효능감, 감성지능,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 및 간호역량의 정도와 관계를 파악하고, 아동간호사의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상관성 조사 연구이다.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에 소재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환아 부모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필요한 소아청소년과 병동, 신생아실,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외과 병동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크기는 G*power 3.1 프로그램에 의하여 중간정도의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80%, 예측변인의 수를 9개로 한 결과 114명이 산출되었고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136명을 목표 인원으로 하였다. 총 123부가 회수되어(회수율 90.4%) 응답이 불완전하거나 누락된 9부를 제외하고 총 114부(92.7%)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도구

● 자기효능감

자기효능감은 Sherer 등[22]이 개발한 General Self-Efficacy Scale (GSES)을 Oh [23]가 번역한 도구이다. 본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확실히 아니다’를 1점, ‘확실히 그렇다’를 5점으로 주고 부정적 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음을 의미하며,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71$ 이었으며 Oh [23]의 연구에서 .88,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 감성지능

감성지능은 Wong과 Law [9]가 개발한 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WLEIS)를 Jung [24]이 사용한 도구이다. 본 도구는 Likert 7점 척도로 ‘전혀 아니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7점으로 주고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기 감성이해, 타인 감성이해, 감성조절 및 감성활용의 4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4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구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7$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 환아 부모와의 파트너십

환아 부모와의 파트너십은 Choi와 Bang [3]이 개발한 아동간호사와 환아 부모와의 파트너십 측정도구(Pediatric Nurse

Parent Partnership Scale, PNPPS)이다. 본 도구는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주고 점수가 높을수록 환자 부모와의 파트너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상호성에 관한 9문항, 전문적 지식과 기술에 관한 7문항, 민감성에 관한 6문항, 협력에 관한 3문항, 의사소통에 관한 4문항, 정보공유에 관한 3문항, 조심성에 관한 2문항으로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3이었다.

● 간호역량

간호역량은 Jang [16]이 개발한 간호사의 임상경력개발모형에서 4단계 임상등급에 따른 13개 간호역량에 대한 96개의 행동지표를 수정, 보완한 Lee [25]의 도구이다. 본 도구는 Likert 4점 척도로 ‘그렇지 않다’를 1점, ‘언제나 그렇다’를 4점으로 주고 부정적 문항은 역환산 처리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역량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4개 실무능력군과 13개 실무능력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과학적 실무능력군에 전문성 개발력 6문항, 병동 업무처리력 4문항, 자원관리능력 4문항, 윤리적 실무능력군에 협력 4문항, 윤리적 가치지향성 4문항, 인격적 실무능력군에 유연성 5문항, 자신감 7문항, 자기조절능력 5문항, 심미적 실무능력군에 환자 지향성 6문항, 환자이해능력 4문항, 임상적 판단과 대처능력 4문항, 타인육성 능력 5문항, 영향력 5문항으로 총 6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ee [25]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9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7이었다.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9년 8월 26일부터 9월 16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직접 연구 대상 병원을 방문하여 부서장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연구수행에 대한 허락과 승인을 받은 후, 소아청소년과 병동, 신생아실,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외과 병동의 부서장 협조를 받아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대상자에게 서면동의서를 받은 후 자료수집을 진행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통계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감성지능, 환자부모와의 파트너십 및 간호역량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역량의 차이는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으며 사후 분석은 Scheffé test를 실시하였다.

-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감성지능, 환자부모와의 파트너십 및 간호역량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산출하였다.
- 대상자의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일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CUIRB-2019-0032)을 받은 후 수행하였다. 연구 참여 전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절차 및 소요시간, 개인정보 관리를 비롯하여 참여의 자발성과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과 문제점, 연구에 참여하지 않거나 연구 도중 언제라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설명문을 제시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 서면동의를 받은 후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명문과 동의서는 본인도 소지할 수 있게 하였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설문지는 개별 봉투에 넣어 양면테이프를 이용하여 밀봉 후 제출하도록 하였고 설문에 응한 대상자에게 감사의 인사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역량의 차이

대상자는 총 114명으로 모두 여성이었고, 연령은 평균 31.30 ±6.81세로 나타났다. 31세 미만이 58명(50.9%)로 가장 많았고, 31세 이상 40세 미만이 40명(35.1%), 41세 이상이 16명(14.0%)의 순이었다. 응답자 중 미혼인 간호사가 77명(67.5%)으로 기혼인 간호사 37명(32.5%)보다 많았으며, 자녀가 없는 간호사가 78명(68.4%), 자녀가 있는 간호사는 36명(32.5%)이었다. 아동간호사근무경력은 평균 4.79±47.38년이었으며 5년 이상의 경력이 45명(39.5%)으로 가장 많았고, 1년 이상 3년 미만이 32명(28.0%), 3년 이상 5년 미만이 23명(20.2%), 1년 미만이 14명(12.3%)의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역량은 연령($F=7.39, p=.001$), 결혼상태($t=3.54, p=.001$), 자녀유무($t=3.77, p<.001$), 아동간호사 근무경력($F=4.09, p=.009$)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결과, 간호역량은 41세 이상인 간호사가 31세 미만인 간호사, 31세 이상 40세 미만인 간호사보다 높았고 기혼인 간호사가 미혼인 간호사보다 높았으며, 자녀가 있는 간호사가 자녀가 없는 간호사보다 높았다. 또한 근무경력이 5년 이상

인 간호사가 1년 미만인 간호사, 1년 이상 3년 미만인 간호사, 3년 이상 5년 미만인 간호사보다 간호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감성지능,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 및 간호역량 정도

대상자의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64±0.42점이었었다. 대상자의 감성지능 정도는 7점 만점에 평균 4.96±0.68점으로 나타났다으며, 하위영역별 평균점수는 자기감성이해 5.24±0.76점으로 가장 높았고 타인감성이해 5.14±0.76점, 감성활용 4.96±0.83점, 감성조절 4.50±0.99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95±0.36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민감성이 4.20±0.43점으로 가장 높았고 정보공유 4.13±0.49점, 전문적 지식과 기술 4.00±0.43점, 조심성 3.94±0.60점, 협력 3.87±0.50점, 상호성 3.82±0.41점, 의사소통 3.71±0.55점 순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간호역량 수준은 4점 만점에 평균 2.81±0.42점이었으며, 하위영역별 평균점수는 윤리적 실무능력군이 2.87±0.50점으로 가장 높았고 인격적 실무능력군 2.83±0.41점, 심미적 실무능력군 2.81±0.48점, 과학적 실무능력군 2.75±0.4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13가지 영역별 간호역량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과학적 실무능력군의 전문성 개발력은 2.63±0.55점, 자원관리능력은 2.82±0.51점, 병동업무처리력은 2.86±0.60점이었고, 윤리적 실무능력군의 윤리적 가치지향성은 2.73±0.54점, 협력은 3.02±0.57점으로 나타났다. 인격적 실무능력군의 자신감은 2.88±0.46점, 자기조절능력은 2.65±0.49점, 유연성은 2.92±0.48점이었으며, 심미적 실무능력군의 환자이해 능력은 2.87±0.62점, 환자

지향성은 2.84±0.56점, 임상적 판단과 대처 능력은 2.86±0.57점, 영향력은 2.82±0.58점, 타인육성능력은 2.70±0.48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대상자의 자기효능감, 감성지능,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 및 간호역량 간의 관계

대상자의 간호역량은 자기효능감($r=.48, p<.001$), 감성지능($r=.67, p<.001$),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r=.59, p<.001$)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자기효능감과 감성지능($r=.42, p<.001$) 및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r=.42, p<.001$)과의 관계에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감성지능과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r=.48, p<.001$)간의 관계도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3).

대상자의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상자의 간호역량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던 연령($F=7.39, p=.001$), 결혼상태($t=3.54, p=.001$), 자녀유무($t=3.77, p<.001$), 아동간호사 근무경력($F=4.08, p=.009$)과, 간호역량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r=.59, p<.001$), 자기효능감($r=.48, p<.001$), 감성지능($r=.67, p<.001$)을 예측 변인으로 투입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투입된 일반적 특성 중 범주형 변수는 가변수(dummy variable) 처리 후 분석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독립변수 간 다중 공선성과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을 검토하였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분산팽창요인(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과 공차한계(tolerance)로 확인하

<Table 1> The Differences of Nursing Competen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1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ean±SD	t or F (p)	Scheffé
Gender	Female	114	100	2.81±0.42		
Age (year)				31.30±6.81		
	<31 ^a	58	50.9	2.71±0.37	7.39 (.001)	a,b<c
	31~40 ^b	40	35.1	2.82±0.42		
	>41 ^c	16	14.0	3.15±0.45		
Marital status	Married	37	32.5	3.01±0.41	3.54 (.001)	
	Unmarried	77	67.5	2.72±0.40		
Presence of children	Yes	36	31.6	3.02±0.40	3.77 (<.001)	
	No	78	68.4	2.71±0.40		
Length of working in pediatrics (year)	<1 ^a	14	12.3	2.53±0.40	4.09 (.009)	a<d
	1~<3 ^b	32	28.0	2.80±0.35		
	3~<5 ^c	23	20.2	2.74±0.38		
	≥5 ^d	45	39.5	2.94±0.46		

였는데 VIF지수가 1.00~1.42로 10미만, 공차한계는 .70~.99로 0.1이상이므로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은 Durbin-Watson 지수로 확인하였으며, Durbin-Watson 지수가 2.06으로 기준값인 2에 근접하므로 자기상관없이 독립적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잔차분석 결과 표준화된 잔차의 범위

가 -3.31~2.56로 ±2에 근접해 등분산성을 만족하였고, 정규성 확인과 모형의 적합성도 만족하여 회귀모형 분석을 위한 가정을 충족하였다(F=44.45, $p<.001$).

다중회귀분석결과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감성지능($\beta=.46$, $p<.001$), 환자부모와의 파트너십($\beta=.30$, $p<.001$), 자기

<Table 2> The Degrees of Self-efficacy, Emotional Intelligence, Nurse- Parent Partnership, and Nursing Competency of Subjects (N=114)

Variables	Mean±SD	Min	Max	Possible range
Self-efficacy	3.64±0.42	2.65	4.94	2.65~4.94
Emotional intelligence	4.96±0.68	3.50	7.00	3.50~7.00
Self emotion appraisal	5.24±0.76	3.50	7.00	3.50~7.00
Other's emotion appraisal	5.14±0.76	2.50	7.00	2.50~7.00
Regulation of emotion	4.50±0.99	2.00	7.00	2.00~7.00
Use of emotion	4.96±0.83	3.25	7.00	3.25~7.00
Nurse-parent partnership	3.95±0.36	3.12	4.94	3.12~4.94
Reciprocity	3.82±0.41	2.78	5.00	2.78~5.00
Professional knowledge & skill	4.00±0.43	2.71	5.00	2.71~5.00
Sensitivity	4.20±0.43	3.17	5.00	3.17~5.00
Collaboration	3.87±0.50	2.67	5.00	2.67~5.00
Communication	3.71±0.55	2.25	5.00	2.25~5.00
Shared information	4.13±0.49	2.67	5.00	2.67~5.00
Cautiousness	3.94±0.60	2.00	5.00	2.00~5.00
Nursing competency	2.81±0.42	1.83	3.95	1.83~3.95
Scientific competency	2.75±0.44	1.93	4.00	1.93~4.00
Professional development power	2.63±0.55	1.33	4.00	1.33~4.00
Resources management	2.82±0.51	1.75	4.00	1.75~4.00
Processing ability of ward works	2.86±0.60	1.25	4.00	1.25~4.00
Ethical competency	2.87±0.50	1.63	4.00	1.63~4.00
Inclination toward ethical value	2.73±0.54	1.50	4.00	1.50~4.00
Cooperation	3.02±0.57	1.25	4.00	1.25~4.00
Personal competency	2.83±0.41	1.88	3.82	1.88~3.82
Self confidence	2.88±0.46	1.71	4.00	1.71~4.00
Self control	2.65±0.49	1.60	4.00	1.60~4.00
Flexibility	2.92±0.48	1.60	4.00	1.60~4.00
Esthetical competency	2.81±0.48	1.79	4.00	1.79~4.00
Understanding patients	2.87±0.62	1.50	4.00	1.50~4.00
Patient service orientation	2.84±0.56	1.83	4.00	1.83~4.00
Clinical judgement and measures	2.86±0.57	1.50	4.00	1.50~4.00
Influencing power	2.82±0.58	1.20	4.00	1.20~4.00
Developing others	2.70±0.48	1.60	4.00	1.60~4.00

<Table 3> Correlations among Self-efficacy, Emotional Intelligence, Nurse-Parent Partnership, and Nursing Competency of Subjects (N=114)

Variables	Self-efficacy	Emotional intelligence	Nurse-parent partnership
	r (p)	r (p)	r (p)
Emotional intelligence	.42 (<.001)		
Nurse-parent partnership	.42 (<.001)	.48 (<.001)	
Nursing competency	.48 (<.001)	.67 (<.001)	.59 (<.001)

효능감($\beta=.14, p=.032$)과 일반적 특성 중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beta=.22, p<.001$)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의 변수는 간호역량에 대하여 60.6%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을 미치는 순서는 감성지능,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 5년 이상의 근무경력, 자기효능감 순이었다(Table 4).

논 의

본 연구는 아동간호사의 자기효능감, 감성지능,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 및 간호역량의 정도를 확인하고자 시행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아동간호사의 간호역량은 4점 만점에 평균 2.81 ± 0.42 점으로 중간 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이는 본 연구의 도구와 동일한 도구로 측정한 Kim과 Jung [26]의 연구에서 평균 2.70 ± 0.41 점, Lee [25]의 연구에서 평균 2.67 ± 0.34 점과 유사한 수준을 나타냈다. 하위영역에서는 윤리적, 인격적, 심미적, 과학적 실무능력군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25,26].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낸 과학적 실무능력군의 ‘전문성 개발력’에 대한 분석결과, 아동간호사는 학교에서 배운 일반적인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 간호를 수행하지만 최신 경향의 간호 지식과 기술을 접하고 함양하는 데에 부족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이를 위한 실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간호 지식체는 실무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형성되어야 하므로 임상간호사의 연구활동이 활발해지도록 병원을 비롯한 간호조직 차원에서의 정책적 지원과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역량은 연령, 결혼상태, 자녀유무, 아동간호사의 근무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미혼간호사보다 기혼간호사가, 자녀가 없는 간호사보다 자녀가 있는 간호사가, 아동간호사 경력이 많을수록 간호역량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내 아동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간호역량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정확한 비교는 어렵지만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임상경력 또한 높아지며, 이는 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의 축적으로 간호역량이 증가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추후 반복연구를 통한 재확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다.

아동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64 ± 0.42 점으로 나타났으며 동일한 도구를 이용한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5,27].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며[6], 본 연구에서는 힘든 간호업무를 수행할 때 역경에도 불구하고 지속하고자 하는 개인의 의지와 능력으로 결과는 중간 이상이였다. 아동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자기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파트너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 확인되었다[5,27]. 본 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은 감성지능과 환아 부모와의 파트너십을 비롯하여 간호역량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아동간호사의 감성지능은 7점 만점에 평균 4.96 ± 0.68 점으로 중간이상의 수준을 보였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8]의 평균 4.64 ± 0.66 점보다 높은 감성지능의 수준을 나타냈다. 하위영역에서는 자기 감성이해, 타인 감성이해, 감성활용, 감성조절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Kim [2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아동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감성지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임상현장에서 간호사는 환자 및 보호자와의 관계 시 자기와 타인의 감성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능력은 높지만 이를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아동간호사의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은 5점 만점에 평균 3.95 ± 0.36 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아동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7]의 평균 3.70 ± 0.40 점보다 높은 점수이다. 본 연구는 상급 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아동간호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아동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7]와는 달리 간호 대상자의 질병 중증도가 높아짐에 따라 오랜 입원 기간과 잦은 입원으로 환아 부모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하위영역에서는 민감성, 정보공유, 전문적 지식과 기술, 조심성, 협력, 상호성, 의사소통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선행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였다[27]. 협력의 세부 문항 중 ‘나와 환아의 부모는 동등한 관계이다’는 평균 3.36 ± 0.93 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아동간호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Nursing Competency of Subjects (N=114)

Predictors	B	SE	β	t	p
Emotional intelligence	.28	.04	.46	6.58	<.001
Nurse-parent partnership	.35	.08	.30	4.26	<.001
Length of working in pediatrics (year) [†] ≥ 5	.19	.05	.22	3.77	<.001
Self-efficacy	.14	.06	.14	2.17	.032

$R^2=.62, \text{Adjusted } R^2=.61, F=44.45, p<.001$

[†] Dummy variable reference was length of working pediatrics (<1=0).

사가 환아 부모와의 관계에서 동등한 관계보다는 힘의 균형을 이루어가는 단계[3]로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아동간호사와 환아부모와의 협력적 관계에서 동등한 파워를 갖지 못한다면 진정한 의미의 협력관계가 이루어지기 어렵다[3]고 하였다. 아동간호사는 치료적 관계를 수립하는 데에 파트너십 간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환아부모와의 협력적 관계 형성 및 상호간의 지지적인 의사소통기술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아동간호사의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감성지능,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 경력, 자기효능감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변수는 아동간호사의 간호역량을 60.6% 설명하였다. 아동간호사의 간호역량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감성지능이 가장 영향력이 높은 변인이었다. 국내에서 아동간호사를 대상으로 감성지능과 간호역량과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가 부족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8]에서 감성지능과 간호업무수행능력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29]에서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지지하였다. 아동간호의 경우 환아부모와의 지지적인 상호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하므로 자신의 감성을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절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아동간호사의 감성지능 증진을 위해 감성조절과 감성활용 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집단속에서 구성된 서로의 감성을 존중하는 조직 분위기의 형성을 통해 감성지능을 함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아동간호사의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두 번째로 설명력이 높은 변인은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이었다. Bac와 Lee [13]의 연구에서 환아 어머니와 아동간호사의 파트너십이 높을수록 환아 어머니가 느끼는 간호의 질 인식 정도가 높아진다고 한 보고에 비추어 볼 때, 아동간호에서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 형성이 중요한 역량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간호사는 부모참여에 대한 인식의 개선 및 아동간호사-부모 역할의 정립으로 동등한 관계의 협력을 바탕으로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추후 연구를 확대하여 이들 변수의 관련성을 병원의 규모와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파악하여 변인간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아동간호사의 간호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은 5년 이상의 아동간호사 근무경력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5,26]에서 총 임상경력 및 현 병동 근무기간이 길수록 간호역량이 높았다는 결과를 지지하였다. 경력이 높아지면서 간호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축적으로 대상자의 간호 문제 해결능력이 향상되면서 간호역량이 증진되고 대상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아동간호의 특성상 영아기에서 청소년기까지 다양

한 연령의 대상자를 간호하므로 아동의 발달 및 연령에 따른 개별화된 간호를 제공하게 된다[12]. 이는 아동간호 임상경력 뿐 아니라 아동간호사 자신의 자녀 양육경험에 의해 더욱 향상될 것이라 생각하며, 숙련된 아동 간호경력이 많은 간호사가 지속적으로 업무할 수 있도록 인적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동간호사의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마지막 변인은 자기효능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수행능력에 대하여 자기효능감이 중요하다고 한 선행연구결과[7,8]를 지지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일반적인 자기효능감 측정 도구로써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결과로는 부족하므로 추후 반복연구하여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간호수행능력은 교육과 자기개발을 통한 임상 실무능력의 개발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높일 때 향상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30]를 고려하면, 아동간호사의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해 아동간호실무에 필요한 아동의 발달단계, 주요질환, 환아 부모와의 의사소통방법 등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아동간호사의 자기효능감, 감성지능,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 및 간호역량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감성지능과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 5년 이상의 근무경력, 자기효능감이 아동간호사의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아동간호사의 간호역량증진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속적인 교육으로 자기효능감과 감성지능을 향상시키고 아동간호사의 인식 개선을 비롯한 부모와의 역할정립을 통한 협력관계의 형성이 필요하다. 아울러 아동간호사의 근무경력과 같은 변수 또한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D시에 소재하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아동간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결론 및 제언

아동간호사의 간호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된 본 연구결과, 아동간호사의 간호역량은 연령, 결혼상태, 자녀유무, 아동간호사 근무경력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자기효능감, 감성지능,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아동간호사의 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확인한 결과 감성지능,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 5년 이상의 아동간호사 근무경력, 자기효능감의 순이었으며, 이들 변수는 간호역량을 60.6% 설명하였다. 국내 아동간호사의 자기효능감, 감성지능, 환아부모와의 파트너십 및 간호역량을 파악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연계하여 아동간호사의 간호역량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해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의

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동간호사의 간호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다양한 요인을 탐색하고, 국내 아동간호 실무환경을 고려한 한국형 아동간호역량 측정도구의 개발을 제언한다.

Conflicts of Interest

The authors declared no conflict of interest.

References

- Hockenberry MJ, Wilson D. Wong's nursing care of infants and children. 10th ed. St. Louis: Mosby; 2015. p. 1-44.
- Choi MY. Parent participation in care of hospitalized children: concept analysis.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14;20(2):105-112. <http://dx.doi.org/10.4094/chnr.2014.20.2.105>
- Choi MY, Bang KS. Development and testing of a pediatric nurse parent partnership scal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3;43(2):194-202. <https://doi.org/10.4040/jkan.2013.43.2.194>
- McCann D, Young J, Watson K, Ware RS, Pitcher A, Bundy R, et al. Effectiveness of a tool to improve role negotia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parents and nurses.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2008;20(5):14-19. <https://doi.org/10.7748/paed2008.06.20.5.14.c8255>
- Choi MY, Kim JS. Associated factors in pediatric nurse parent partnership.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014; 20(3):176-184. <http://dx.doi.org/10.4094/chnr.2014.20.3.176>
- Bandura A.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Advances in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1978;1(4):139-161. [https://doi.org/10.1016/0146-6402\(78\)90002-4](https://doi.org/10.1016/0146-6402(78)90002-4)
- Cho MJ, Sung MH. Impact of role conflict, self-efficacy, and resilience on nursing task performance of emergency department nurs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018;27(1):59-66. <https://doi.org/10.5807/kjohn.2018.27.1.59>
- Kang SJ, Jeon EY. A study on the relationships among Korea collegiate essential skills assessment, self-efficacy, and clinical practice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2015;18(3):151-178. <https://doi.org/10.36907/krivet.2015.18.3.151>
- Wong S, Law S.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2002;13(3): 243-274. [https://doi.org/10.1016/S1048-9843\(02\)00099-1](https://doi.org/10.1016/S1048-9843(02)00099-1)
- Kim YJ. The influence of a general hospital nurse's emotional labor, emotional intelligence on job stres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4;12(9):245-253. <http://dx.doi.org/10.14400/JDC.2014.12.9.245>
- Anne CH, McQueen BA. Emotional intelligence in nursing work.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04;47(1):101-108. <https://doi.org/10.1111/j.1365-2648.2004.03069.x>
- Choi MY, Bang KS. Quality of pediatric nursing care: concept analysi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0;40(6):757-764. <https://doi.org/10.4040/jkan.2010.40.6.757>
- Bae SY, Lee IS. The effect of child's mother and nurse partnership on the anxiety and perceived quality of nursing care of hospitalized child's mother.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7;18(7):516-528. <https://doi.org/10.5762/KAIS.2017.18.7.516>
- Davies C, Waters D, Marshall A. The nursing assessment of infants with bronchiolitis. *Journal of Child Health Care*. 2017;21(2):181-190. <https://doi.org/10.1177/2F1367493517697480>
- Pelander T, Leino-Kilpi H, Katajisto J. The quality of pediatric nursing care: developing the child care quality at hospital instrument for childre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09;65(2):443-453. <https://doi.org/10.1111/j.1365-2648.2008.04875.x>
- Jang KS. A study on establishment of clinical career development model of nurses. [dissertation], Seoul: Yonsei University; 2010. 201 p.
- Kemp L, Cowley S, Byrne F. Maternal early childhood sustained home-visiting (MECSH): a UK update. *Journal of Health Visiting*. 2017;5(8):392-397. <https://doi.org/10.12968/johv.2017.5.8.392>
- Gibson F, Soanes L. The development of clinical competencies for use on a pediatric oncology nursing course using a nominal group technique.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000;9(3):459-469. <https://doi.org/10.1046/j.1365-2702.2000.00404.x>
- Kim JS, Shin HS. Development of the developmental support competency scale for nurses caring for preterm infa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2016;46(6): 793-803. <https://doi.org/10.4040/jkan.2016.46.6.793>
- Parant RL, Pingitore FR, LaRose JA. An educational program to promote competency in pediatric psychiatric mental health nursing. *The Journal of Continuing Education in Nursing*. 2014;45(7):321-326. <https://doi.org/10.3928/00220124-20140620-01>
- Christian BJ. Translational research-transforming the quality of pediatric nursing practice.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2014;29(3):268-271. <https://doi.org/10.1016/j.pedn.2014.03.024>
- Sherer M, Maddux JE, Mercandante B, Prentice-Dunn S, Jacobs B, Rogers RW. The self-efficacy scal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Psychological Reports*. 1982;51(2):663-671. <https://doi.org/10.2466/2Fpr0.1982.51.2.663>
- Oh HS. Health promoting behaviors and quality of life of Korean women with arthritis. *The Journal of Nurses Academic Society*. 1993;23(4):617-630. <https://doi.org/10.4040/jnas.1993.23.4.617>
- Jung HW.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dissertation], Busan: Busan University; 2007. 181 p.
- Lee MJ. A study of factors related to clinical competency in nurses. [master's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 2002. 68 p.
- Kim SH, Jung NO. Influence of career plateau on the job

- satisfaction and nursing competency of general hospital nurses. *Korean Journal of Occupational Health Nursing*. 2019; 28(3):138-147. <https://doi.org/10.5807/kjohn.2019.28.3.138>
27. Yoon SJ, Noh JH. The influence of emotional labor and self-efficacy of nurses at children's hospital on their partnership with par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2018;25(1):15-24. <https://doi.org/10.22705/jkashcn.2018.25.1.015>
28. Kim YN. The influences of emotional intelligence, self-leadership, and job embeddedness on nursing work performance.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2018;12(2):51-62. <https://doi.org/10.12811/kshsm.2018.12.2.051>
29. Lee OS, Kim MJ.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clinical competence in new graduate nurses immediately after gradu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8;16(6):307-315. <https://doi.org/10.14400/JDC.2018.16.6.307>
30. Johnson A, Hong H, Groth M, Parker SK. Learning and development: promoting nurses' performance and work attitude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2011;67(3):609-620. <https://doi.org/10.1111/j.1365-2648.2010.05487.x>

Influence of Self-efficacy, Emotional Intelligence, and Nurse-Parent Partnership on the Nursing Competency of Pediatric Nurses^{*}

Mun, Hye Mi¹⁾ · Yoo, Myung Sook²⁾

1) Nurse, Fatima hospital of Daegu, Daegu

2)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Daegu Catholic University, Daegu, Korea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emotional intelligence, and nurse-parent partnership on the nursing competency of pediatric nurses. **Methods:** This study recruited 114 pediatric nurses working in one tertiary general hospital and two general hospitals in the city.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ed questionnaires from August 26 to September 16, 2019, and were analyzed using the statistical package IBM SPSS 22.0. **Result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self-efficacy, emotional intelligence, nurse-parent partnership, and nursing competency. The nursing competency of these nurses was affected by significant predictors such as emotional intelligence, nurse-parent partnership, work duration in pediatrics, and self-efficacy. These variables explained 60.6% of nursing competency of pediatric nurses. **Conclusion:** To improve the nursing competency of pediatric nurses, we should develop an intervention that can enhance the nurses' emotional intelligence, self-efficacy, and nurse-parent partnership. Furthermore, greater consideration of nursing careers is needed.

Keywords: Clinical competence; Emotional intelligence; Pediatric nursing; Professional-family relations; Self efficacy

* This article is a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Yoo, Myung Sook

College of Nursing, Research Institute of Nursing Science, Daegu Catholic University
33, Duryugongwon-ro 17-gil, Nam-gu, Daegu, 42472, Republic of Korea
Tel: 82-53-650-4824, Fax: 82-53-650-4392, E-mail: sryoo7@cu.ac.kr